

고린도전서

개요

고린도교회 개척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에 개척(開拓)되었다.

빌립보(행 16) ---> 데살로니가(행 17)
---> 베뢰아(행 17) ---> 아덴(행 17)
---> 고린도(행 18)

아덴(Athens)에서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Priscilla)와 아굴라(Aquila)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 그들은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오(Claudius)가 AD. 49년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었다.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하여는 『고별설교 - 서로 문안하라(롬 16)』를 참조하라.

바울은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tent making*) 고린도교회를 개척하였다.

* 오랜 세월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diaspora*)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매우 실용적인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 가문의 전통이 있었다. 바울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은 가족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도 장막 깎는 기술을 활용하여 고린도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같은 기술을 지닌 이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고린도교회에서 일년 육개월을 사역한 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교회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고린도교회에 『몇 차례』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하였다.

(행 18:1) 그 후에 바울이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행 18: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 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행 18: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 18: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하니라

(행 18:5) 실라와 디모테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행 18: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행 18: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행 18: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행 18: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행 18:10)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저작 시기와 장소: AD. 54-55 년경 에베소에서 썼다.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분열

(고전 1: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전 1: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심각한 도덕적 부패와 죄악

(고후 12: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후 12: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을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전 5: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 바울은 (롬 1:18-32)에서 당시 로마에 횡행하고 있던 죄악(罪惡)의 참상(慘狀)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그 모든 죄악의 참상은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고린도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구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히브리적 사고(思考)의 시간적 이원론(二元論)을 고린도의 헬라적 이원론 즉 존재론적 이원론(二元論)으로 해석하였다.

시간적 이원론: 『이 세대』 vs 『오는 세대』

(마 12: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 12: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 24: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 24: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 24: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눅 11: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눅 11: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고전 1: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전 2: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갈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 1: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 3: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 3: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 3: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 3: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존재론적 이원론

이데아(Idea) 곧 『영(靈)』 vs 그림자인 『육(肉)』

* 헬라철학은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며 무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성령론에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고전 4:8)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고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분파(分派)

영지주의적 영성 - 영(靈)은 중요하고 그림자인 육(肉)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the Incarnation*) 과 인성(人性)을 부인한다.

열광주의자 -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전 6:12),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고전 6:13) - 이는 아마도 그리스도파, 자유주의자, 열광주의자들의 구호였을 것이다.

반면 고린도교회에는 『금욕주의자』 들도 있었다. 이들을 (로마서 15:1)에서는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구호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고전 7:1),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전 4:6) 였을 것이다.

* 이것은 아마도 『게바파』의 구호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된다.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식, 지혜를 지나치게 중시 - 헬라 철학의 영향

수사학과 언변을 중시 - 그 결과 방언과 예언을 중시 - 이것도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다. 지식과 언변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아블로 파』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블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행 18: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세속주의 - 더러운 음행과 죄악이 있었던 반면,

신비주의 - 방언과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교회,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던 교회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8)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전 12: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전 12: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전 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제13장에서 그 모든 은사(恩賜)를 『사랑』으로 행사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 한국교회에는 『사랑』을 은사로 생각하여 고린도전서 제13장을 은사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사랑』은 성도의 소중한 영적(靈的) 품성(品性)이다.

** 어거스틴: 본질(本質)에 있어서는 일치(一致)를, 비본질(非本質)에 있어서는 관용(寬容)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이전 편지 (previous letter)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낸 일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고전 5:9), 『이전 편지 (previous letter)』, 이 편지는 아마도 고린도교회를 엄중하게 꾸짖는 편지였던 것 같다. 학자들은 아마도 (고후 6:14 - 7:1)의 내용이 『이전 편지』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推測)한다. 문맥(文脈)상 (고후 6:13)과 (고후 7:2)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고후 6: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후 6: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후 6: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義)와 불법(不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聖殿)과 우상(偶像)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聖殿)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 6: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고후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 7: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不義)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서

고린도교인들은 바울에게 대표단을 보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質問)을 하였다.

(고전 16:17)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코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코』는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교회의 질문서를 가지고 온 대표단(代表團)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차례차례 대답하고 있다(고전 제7-16장).

첫 번째 질문: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Now concerning the things about which you wrote - NASB*)』 (고전 7:1)

* 『처녀에 대하여는 (*Now concerning virgins - NASB*)』
(고전 7:25) - 이것은 소제목(小題目)이다.

두 번째 질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Now concerning things sacrificed to idols - NASB*)』 (고전 8:1-11:1)

세 번째 질문: 『신령한 것에 대하여 (*Now concerning spiritual[gifts] - NASB*)』 (고전 12:1-14:40)

이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이다. 개정개역 성경의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것 (*the spiritual*)』이라는 뜻이다.

이상의 질문 외에도 바울은 『형제 아블로에 대하여는 (*Now concerning our brother Apollos - NASB*)』 (고전 16:12),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Now concerning the collection for the saints - NASB*)』 (고전 16:1)』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구조

서론(고전 1:1-9)

본론(고전 1:10-16:20)

문안인사 및 축복(고전 16:21-24)

1.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고전 1:10-31)
2.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이다(제2장).
3. 교회란 무엇인가(제3장)?
4. 영적(靈的) 지도자는 누구인가(제4장)?
5. 고린도교회의 문제들(구원받은 성도의 윤리)
 - 음행(淫行) 문제(제5장)
 - 법정 송사(訟事)의 문제(고전 6:1-8)
 - 음행(淫行)의 죄(고전 6:9-20)
6. 고린도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 결혼에 대하여, 부부 관계의 도리에 대하여(고전 7:1-7)
 - 독신자와 과부들의 결혼(結婚)에 대하여(고전 7:8-9)
 - 이혼(離婚)에 대하여(고전 7:10-16)
 - 처녀에 대하여는(고전 7:25)
 - 독신(獨身)의 문제(고전 7:27-40)
 -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제8장)
7. 바울의 사도권(使徒權) 변증(제9장)
8.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피하라(제10장).
9. 예배의 품위와 질서(秩序) 문제(제11-14장)
 -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고전 11:2-16)
 - 성만찬(聖晚餐)의 무질서(無秩序) 문제(고전 11:17-34)
 - 은사(恩賜)의 무질서(無秩序) 문제(제12장)
 - 은사(恩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으로(제13장)!
 - 예언과 방언(제14장)
10. 부활장(Chapter of Resurrection)
11.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요청/향후 선교 계획(고전 16:1-9)
12. 바울의 동역자들(고전 16:10-20)

복음성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